

이종익 제 6회 개인전

아름다움은 악에서부터

| Beauty is from evil



이종익 제 6회 개인전

아름다움은 악에서부터

| Beauty is from evil

2014년 10월 15일(수) - 10월 26일(일)

초대 2014년 10월 17일 (금) 오후 3시-6시



G A L L E R Y
이 연 주 갤 러 리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170-5

T. 051) 723-4883

휴관안내 : 매주 월요일 휴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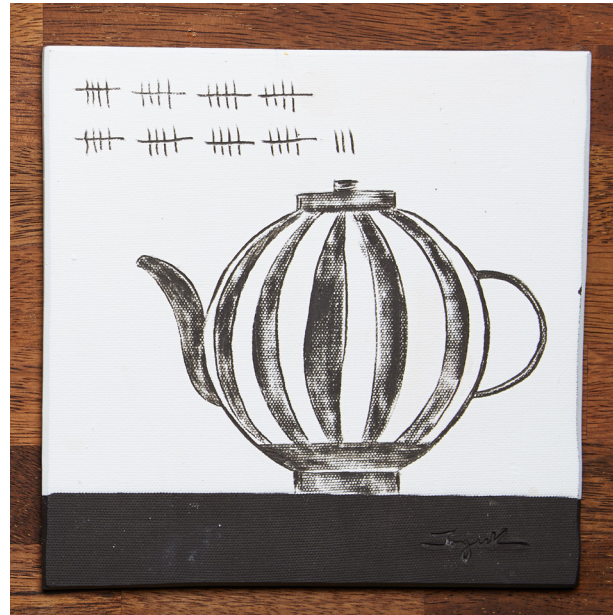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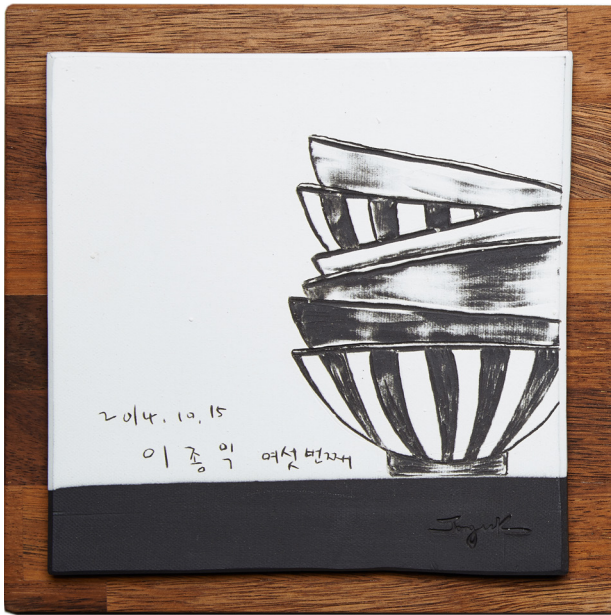
본 전시는 2014년



부산광역시



의 사업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Scribble - 2014

“미(美)를 추구하고, 탐닉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예술가!

다르게 표현하자면 “해가 뜨고 달이 뜨는 것처럼 자연스런 아름다움들과 여러 관념적 현상들을 가시화 시켜 소유할 수 있게 만드는 이”

미의 추구, 탐닉, 소유를 캔버스나 인화지에 가두거나 다른 특정한 물체에 가두며 손에 잡혀지는 아름다움으로 형상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예술가들을 때때로 회의에 빠져든다.

미 추구에 근본적 합목적성의 정의를 자유롭게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로마시대의 맹목적 신 중심의 미가 나온 해석에서부터 르네상스시대를 거치며 인간중심 미적표현과 현대에 이르러 앞의 둘을 아우르는 다양한 해석들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은 심미적 인간의 욕망 표출 쾌락 속에 숨어있는 악의 발견이다.

일 년에 한 두 개씩 생산되는 명품은 장인의 손을 거쳐 수억원에 팔리고

멸종의 위기에 있는 동물의 가죽은 동물 보호단체의 비난을 무시하며 모피코트로 만들어져 또 수백 수천만원에 팔린다.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살생과 소외의 상대적 박탈감을 양상해 내며 모순적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이 아름다움의 추구는 과연 어디서 온 것일 까?

보편적으로 미는 단순하게 인식의 감정적 측면의 표출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보편성은 전적으로 주관적인 것이지만 미적 판단은 보편적 객관성을 수반하기에 진이나 선의 판단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은 개념의 보편성은 아니다. 따라서 미는 개념 없이 보편적으로 만족을 주는 것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칸트의 미학 이론에서 독자적인 감성적 인식의 영역에서 그 위치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미를 진(眞)이나 선(善)에서 분리시키고 감성에 대응하는 면에서만 추구해 갈 때 미는 악과 결부 되는 경향으로 흐르는 새로운 양상을 나타낸다.

미가 진이나 선과 단절되면 반대로 부조리나 악과 결합되는 것이다. 그만큼 미의 자율성을 확립하기가 곤란한 일이다.

아름다움을 소유하는 순간 나비효과처럼 다른 한편에 그 무엇인가는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악한 것이 더 아름답고 매력적인 함정.

이 함정 속에 악을 어떤 방식으로 숨기고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가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론이 또 다른 해석을 하게한다. 아름다움은 악에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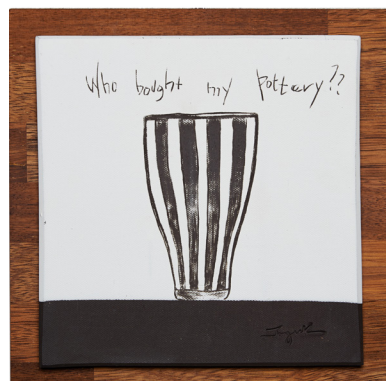




Temptation –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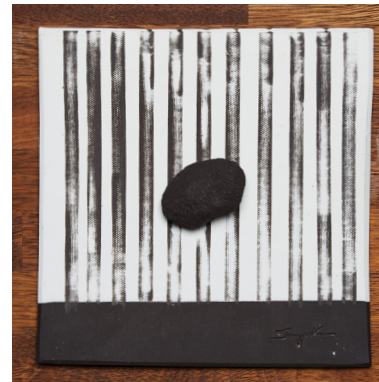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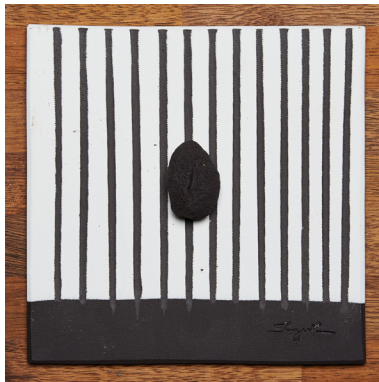
Who bought my pottery – 2014



Temptation - 2014-2











이종익 | Lee, Jong Ick

학력

동아대학교 공예과 졸업
국민대학교 대학원 도예과 졸업

개인전

2002 개인전 (서울 목,금,토 갤러리)
2003 석사학위 청구전 (서울 국민대 조형갤러리)
2007 개인전 “和而不同” (부산 롯데화랑)
2009 개인전 touch the soul (호주 멜버른 chapel on station gallery)
2012 개인전 “흔적” (부산 송하갤러리)
2013 개인전 natural brown (부산 바나나롱갤러리)
2014 개인전 “아름다움은 악에서부터” (부산 이연주갤러리)

페어 부스 개인전

2006 서울 리빙 디자인 페어 (서울 코엑스)
2010 청주 국제 비엔날레 (청주)
2013 서울 리빙 디자인 페어 (서울 코엑스)
2013 부산 미술 디자인 페어 (부산 백스코)
2014 국제 음식박람회 부스전 (부산 백스코)

현재

동아도예가회 회원
기장도예협회 회원
부산미술협회 회원
CLAY-BUS 회원
부산도예교육센터 대표
BAUHAUS 공방 운영 (since 2002)
동아대학교 예술대학 공예과 출강
경성대학교 예술대학 공예디자인과 출강

작업장.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685-10 바우하우스

Homepage. www.leejongik.net | busanceramics.co.kr

E-mail. artdean@hanmail.net

연락처. 010-2552-2081

All works of art © 2014 Lee, Jong Ick

Catalogue © 2014 LEEYEONJU GALL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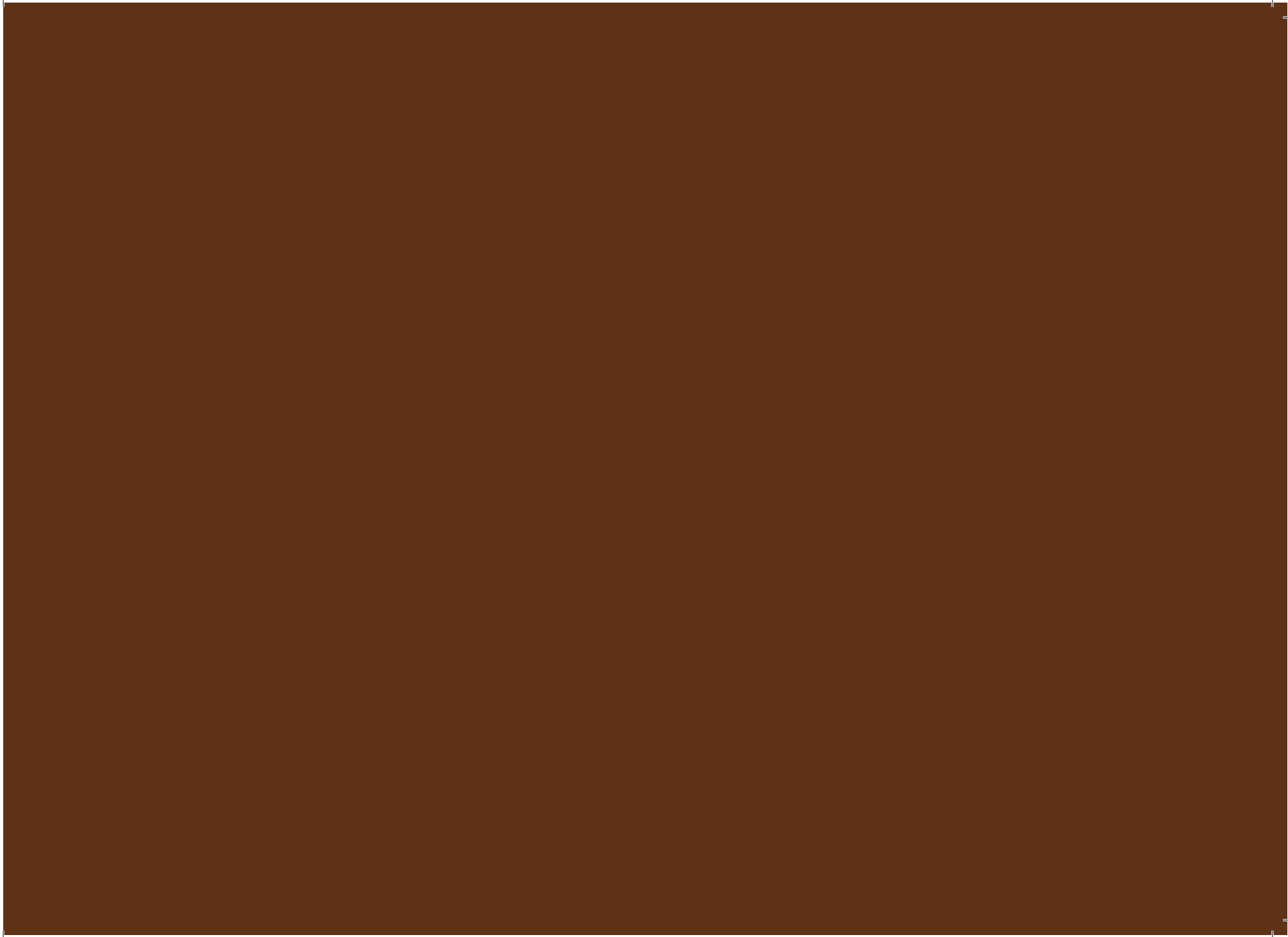
Text © 2014 Lee, Jong Ick

Design & Production KCA | Korea Contents Archive 051)742.2558

This exhibition was organized by LEEYEONJU GALLERY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or mechanical without written permission of the publisher.

Limited edition of 200 copies, Printed and bound in Korea



이종익 제 6회 개인전

아름다움은 악에서부터

| Beauty is from evil